

## 사상체질진단검사(QSCC II) 설문지 간소화 연구

박 지원\* · 왕 명 자\*\* · 김 정 아\*\*\*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최근의 질병양상과 사망원인은 과거에 비해 크게 변하여 감염성질환에 의한 이환율이나 사망률은 급속히 감소한 반면,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점점 증가추세에 있다. 이에 만성질환자들은 자신의 질병관리를 위해 전통적인 건강관리, 즉 현대의학으로 해결 안 되는 부분에 대해 한방요법이나, 대체요법, 민간요법을 요구하고 있다.

예로부터 동양에서는 인체를 자연현상과 동일시하여 그 변화를 음양, 오행 등의 이론으로 체계화하여 이들이 갖는 규율성을 토대로 전체적인 기능의 조화에 역점을 두어왔다.(Kim & Kim, 1998). 또한 한의학에서는 질병의 원인을 육음, 칠정, 음식, 노권, 방실의 과도, 부절제로 보고, 다양한 개체의 체질에 맞는 생활습관 및 식이 조절 등의 적절한 조치에 의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동양의학의 관점은 환경과 상호 작용하는 복잡한 유기체로서의 인간이 환경 내에 있는 특수한 힘에 적응하여 평형의 상태 즉, 조화의 상태를 이룩하여 가능한 최고의 건강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간호본연의 활동과 상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Moon & Jung, 1996). 그러나 동·서 의학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동일 질병에 사용한 약물이 개인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나고 질병에 대한

감수성도 개인별 차이가 심해 현대화된 기술과 장비가 있어도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Koh, etc, 1999).

그러한 가운데 東武 李濟馬 선생은 인간개체의 차등적 특수성을 인정하여 사람의 체질을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등 네 체질로 나누고 체질에 따라 생리 현상의 조건과 병리 현상의 조건을 정신과 육체적 입장에서 설명하였다(Kim & Kim, 1999b). 이러한 사상의학의 네 체질에 따른 질병 관리, 치료 및 예방법은 현대의 해결이 어려운 난치병 관리에 개체의 차이를 반영한 체질 개념을 도입하여 질병치료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Koh, etc, 1999). 이러한 사상체질의학은 일부 한의사들의 관심사였으나 최근들어 동양사상과 한의학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면서 일반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져 체질을 알면 자신의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훌륭한 우리 민족의 독창적인 의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연구하여 발전시키는 일은 그다지 많은 진전이 없었으며 더구나 대중적으로 보급하는 일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체질을 진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임상적 활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Park, etc, 1999).

그간 체질감별에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 두부촉진법, 유방 및 장골 척도법, 태극침법, 팔체질침법, 맥진법, 형태학적 도식화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근래에는 유전자의 특성과 지문 또는 성문에 대한 연구도 시도되

\* 이주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교수(교신저자 E-mail : chunchundang@khu.ac.kr)

\*\*\* 세명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고 있어(Koh, etc, 1999) 사상의학의 학문적 체계 수립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체질감별을 위한 종래의 방법은 주관적이고 경험적이며 임상적인 방법이 대부분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기존의 연구는 심리적, 정신적 요소가 결여되어 있고 실제로 임상에 적용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되어 이를 보완하여 개발한 것이 설문지(Park, etc, 1999)이며, 아울러 설문지의 객관화를 위한 방안으로 설문지에 대한 지속적인 수정보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Song, 1998; Kim & Kim, 1999a).

최근 개발되어 설문지의 타당성과 객관화를 위한 연구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온 사상체질진단검사(Questionnaire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 QSCC) II의 경우도 판별정확율이 70%정도이므로 판별정확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지속적인 설문지 보완작업이 요구된다(Jang, etc, 2001). 특히 QSCC II 설문지는 임상연구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진단방법(Kim & Kim, 1999a; Jang etc, 2001)이나 사상의학을 전공한 전문가가 아닌 일반 임상이 활용하기엔 설문문항수가 많고 설문조사에 시간이 많이 걸리며, 사상의학적 관점으로 대상자의 체질을 판단함에 있어 문항에 대한 대상자의 정확한 이해부족 등으로 인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등의 난점이 있어, 임상에서 보편적인 기준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각 일반 임상가들은 나름대로의 체질판별 기준을 통해 사상체질판별을 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Kim & Kim, 1998).

이에 본 연구자는 사상체질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시각에서 설문지의 임상적 타당성을 검토해 봄도 설문지의 객관화를 위해 가치 있는 연구라 사료되어 그 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 2. 연구 목적

인체의 전체적인 기능과 조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한의학의 관점과 상통한 전인간호를 주장하는 간호학의 입장에서 개인의 체질을 파악하는 것은 개별적인 간호를 제공함에 있어 개인의 판단기준이나 행동을 예측하여 간호중재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간호현장에서 간편하게 대상자의 체질을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사상체질 분포를 비교한다.

2) 기존의 체질분류 설문지인 QSCC II의 문항을 분석한다.

3) 간소화한 설문지의 문항 적합성을 평가한다.

## 3. 연구의 제한점

대상자의 체질을 사상의학 전문가의 최종 진단없이 QSCC II 설문지를 이용해서 실시한 결과만으로 분류하였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A 대학병원의 외래와 건강검진센터에 내원한 대상자를 모집단으로 하였다. 2001년 7-8월 사이에 내원하여 설문지를 통한 체질 감별에 대하여 관심을 보인 대상자를 연구에 참여시켰다. 결과적으로 정상인의 범주에 속하는 건강검진센터 방문자 259명, 환자 범주에 속하는 외래 진료환자 292명 등 총 56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 2. 연구도구

현재 타당도가 검토된 설문지로는 [사상변증 내용 설문조사지], [QSCC I], [QSCC II]가 있는데 이중 타당성의 검증과정을 거쳐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지는 QSCC II 설문지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QSCC II 설문지는 기본 내용이 사상의학의 원전적인 [격치고]와 [동의수세보원]에 근거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고 원문에 기록이 없는 진단 기준은 통계적 검증을 거친 이후에 타당성이 인정되는 문항들로만 구성되어 제작된 것으로 한국인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것이다. QSCC II 설문지는 또한 다른 어떤 체질진단도구보다 진단 정확률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어 현재 사상체질학회에서 체질진단의 공식검사방법으로 공인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 = .7692 로 나타났다.

### 3. 사상체질진단 방법

QSCC II 설문지를 통해 얻은 응답을 Win QSCCII

99 version(주식회사 소프트웨어/대한한의학회 사상의학회)에 입력하여 체질진단 결과를 얻었다. QSCC II 진단프로그램은 객관적인 사상체질 진단을 위한 pc용 프로그램으로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사상의학과에서 공동으로 개발하여 그 타당성이 입증되어 표준화 작업을 거쳐 객관화된 진단지표를 제공하고 있다.

#### 4. 분석방법

SPSS 10.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반 사항은 빈도분석을, 체질과 각 문항 사이의 관련성 존재에 대한 검증은 선택형문항의 답가지와 진위형 문항의 OX 빈도를 산출하여  $X^2$ -test로 체질간 빈도의 차이를 검증하였고, 체질별로 각 체질에 해당하는 문항의 체질간의 차이를 one way ANOVA를 통해 차이를 검증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분포는 30대와 40대가 각각 31.5%, 30.1%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고 평균 39.4세로 나타났다. 성별은 여자가 54.9%로 남자(43.7%)보다 많았으며 대상자의 84%가 기혼상태이었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상에 87.3%가 분포하였고, 종교는 없는 경우(31.2%)보다 어느 종교든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68.8%로 더 많았다. 월수입은 200만원대와 300만원대가 각각 31.0%, 25.4%로 많았다(Table 1).

#### 2. 대상자의 체질 분포

체질진단결과 사상체질중 태양인의 경향을 지닌 대상자는 없었으며, 소음인과 태음인이 각각 41.5%, 39.2%로 유사하게 분포하였고 소양인은 19.2%로 나타났다(Table 2), 이러한 대상자의 체질 구성비율은 연령, 성별, 결혼력, 학력, 종교유무, 경제상태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무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 3. QSCC II 설문지 문항 분석

QSCC II 설문지는 각 문항마다 답가지를 제시하여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568)

variable	classification	frequency	percent
Age	under 29 year	97	17.1
	30-39year	179	31.5
	40-49year	171	30.1
	50-59year	55	9.7
	over 60 year	28	4.9
	no answer	38	6.7
Sex	male	248	43.7
	female	312	54.9
	no answer	8	1.4
marriage	married	477	84.0
	single	79	13.9
	no answer	12	2.1
education	illiteracy	2	0.4
	elementary	13	2.3
	middleschool	38	6.7
	highschool	233	41.0
	undergraduate	159	28.0
	graduate	104	18.3
	no answer	19	3.3
religion	christian	144	25.4
	catholic	82	14.4
	budism	135	23.8
	nothing	177	31.2
	others	7	1.2
	no answer	23	4.0
income per month (ten thousand won)	under 100	39	6.9
	101-200	176	31.0
	201-300	144	25.4
	301-400	95	16.7
	over 401	82	14.4
	no answer	32	5.6

(table 2) constitutional distribution of the subjects

type of constitution	Subjects	
	frequency	percent(%)
Soyangin	102	19.2
Taeumin	208	39.2
Soeumin	220	41.5
Total	530	100.0

대상자가 선택하게 하는 문항 15개(A1~A15)와 내용만 제시하고 O, X를 표시하게 하는 문항 106개(B16~B121)로 구성되어 있다.

#### 1) 선택형 문항에 대한 분석

선택형 문항에 대한 분석 결과는<Table 3>과 같다.

#### 가. 외형 관찰문항(A1 - A6)

A1. 체격 : 체격이 큰 편에 해당하는 체질은 태음인데, 본 연구에서는 소양인의 13%, 태음인의 43%, 소음인의 6%가 큰 편이라고 응답하여 태음인이 다른 체질에 비해 큰 차이로 높았다. 또한 체격이 작은 편에 해당하는 체질은 소음인데, 본 연구에서는 소양인의 17%, 태음인의 10%, 소음인의 28%가 작은 편이라고 응답하여 체격이 큰 편일 때 태음인으로 분류되는 강도보다는 약하나 체격이 작으면 소음인일 경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체격이 보통에 해당하는 체질은 소양인데, 본 연구에서는 소양인의 70%, 태음인의 47%, 소음인의 66%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여 역시 소양인은 체격이 보통이라고 인식하는율이 높았으나, 소음인중에서도 자신의 체격을 작은 편으로 인식하는 대상자보다 보통

이라고 인식하는 대상자가 더 많았음을 알 수 있다.

A2. 체형 : 자신의 체형을 뚱뚱한 편이라고 인식하는 체질은 태음인, 마른 편이라고 인식하는 체질은 소음인데, 본 연구에서도 태음인의 51%가 뚱뚱한 편으로, 소음인의 28%가 마른 편으로 응답하여 다른 체질에 비해 높았다.

A3. 상하체 관계 : 상하체 관계에서 상체가 발달하면 태음인, 하체가 발달하면 소음인으로 분류하는데, 본 연구에서도 큰 차이는 아니나 상체발달에는 태음인의 35%가, 하체발달에는 소음인의 26%가 응답하여 다른 체질에 비해 높았다.

A4. 체형 발달 부위 : 체형 중 발달부위를 중심으로 가슴이 발달하고 둔부가 빈약하면 소양인, 허리가 발달하고 목이 빈약하면 태음인, 둔부가 발달하고 가

<Table 3-1> Item analysis of multiple choice questionnaire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constitutional type	Soyangin		Taeumin		Soeumin		Diff.	
			freq	%	freq	%	freq	%	X <sup>2</sup>	P
A1 body structure	tall & big	Tayang, Taeum	13	13	89	43	13	6	99.790	0.000
	average	Soyang	71	70	97	47	144	66		
	small	Soeum	17	17	20	10	61	28		
			101		206		218			
A2 body figure	fatty	Taeum	12	12	106	51	21	10	125.41	0.000
	average		72	71	91	44	136	62		
	lean	Soeum	17	17	10	5	62	28		
			101		207		219			
A3 development of body fraction	upper side	Tayang, Taeum	29	29	72	35	40	18	20.65	0.000
	lower side	Soeum	12	12	38	18	56	26		
	even		60	59	97	47	123	56		
			101		207		219			
A4 physical growth	big neck		12	15	27	15	28	15	4.97	0.000
	big chest	Soyang	29	37	57	31	56	29		
	small neck	Taeum	9	11	35	19	28	15		
	small chest	Soeum	29	37	62	34	80	42		
			79		181		192			
A5 skeletal appearance	thick	Taeum	28	27	129	84	29	13	139.2	0.000
	thin	Soeum	26	25	24	16	110	51		
	average	Soyang	48	47	1	1	76	25		
			102		154		215			
A6 chest growthment	wide & fatness	Taeum	20	21	82	41	21	10	73.6	0.000
	slender	Soeum, Soyang	33	35	37	19	91	44		
	wide & firm		19	20	55	28	40	20		
	stout	Tayang	22	23	25	13	53	26		
			94		199		205			
A7 food preference	hot	Soyang, Soeum	33	32	44	21	48	22	26.54	0.000
	warm	Soeum	43	42	68	33	112	51		
	cool	Taeum	17	17	69	32	44	20		
	cold	Tayang, Soyang	9	9	24	12	14	6		
			102		205		218			

숨이 빈약하면 소음인으로 분류한다. 본 연구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으나 소양인(37%)은 가슴이 발달하고, 태음인(19%)은 허리가 발달하였으며, 소음인(42%)은 둔부가 발달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체질에 비해 높았다.

A5. 외모와 골격 : 외모와 골격면에서 골격이 굵고 살찐 편이면 태음인, 골격이 작고 균형이 잡혔으면 소음인, 골격이 보통이고 다부진 체격이면 소양인으로 분류하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에 해당하는 체질에서의 흡연률이 각각 84%, 51%, 47%로 나타나 다

른 체질에 비해 높았다.

A6. 가슴발달 : A4와 유사한 질문이나 가슴이 넓고 발달했으면(비만형) 태음인, 빈약하고 구부정하면(세장형) 소음인이나 소양인으로 분류하는데, 본 연구에서도 비만형엔 태음인이 41%로, 세장형에는 소음인이 44%, 소양인이 35%로 나타나 다른 체질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나. 증의 관찰문항(A7 - A11)

<Table 3-2> Item analysis of multiple choice questionnaire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type of constitution	Soyangin		Taeumin		Soeumin		Diff.	
			freq	%	freq	%	freq	%	X <sup>2</sup>	P
A8 temperature of hand & foot	cold	Soyang, Soeum	40	39	57	28	131	60	46.91	0.000
		Tayang, Taeum	62	61	148	72	86	40		
	warm		102		205		217			
A9 gait type	slow & heavy	Taeum	12	12	59	29	36	17	32.52	0.000
		Soeum	35	34	58	28	102	47		
	rapid & sway	Soyang	43	42	62	30	48	22		
	straight	Tayang	12	12	28	14	31	14		
			102		207		217			
A10 sweating	lot & refresh	Taeum	21	21	106	51	50	23	64.46	0.000
		Soeum	27	27	49	24	100	46		
	scant & tired	Soyang	53	52	52	25	68	31		
			101		207		218			
A11 skin texture of foot & hand	crack well		35	34	78	38	87	40	1.07	0.586
	no crack		67	66	128	62	129	60		
			102		206		216			
A12 general attitude	rude	Tayang, Taeum	14	14	47	23	19	9	69.32	0.000
	active	Soyang	34	34	43	21	15	7		
	formal		29	29	49	24	59	27		
	obedient	Soeum	23	23	67	33	122	57		
			100		206		215			
A13 innermost feelings	deep-seated ambition	Taeum	9	10	31	17	28	14	19.32	0.004
			despise	16	18	29	16	45		
	self-interest	34	38	89	49	64	33			
	jealousy	30	34	31	17	57	29			
			89		180		194			
A14 dislike person with	etiquette	Taeum	8	8	23	11	11	5	7.58	0.270
	gentle	Soyang	10	10	29	14	25	12		
	loyalty		4	4	9	4	13	6		
	intelligence		74	77	142	70	167	77		
			96		203		216			
A15 working pattern	propulsive	Taeum	33	34	68	33	37	17	55.43	0.000
	outstretch	Soyang	34	35	34	17	27	12		
	single-handed		22	22	76	37	126	58		
	hesitation	Soeum	9	9	28	14	29	13		
			98		206		219			

- A7. 음식 온도: 뜨거운 음식을 좋아하면 소양인이나 소음인, 따뜻한 음식을 좋아하면 소음인, 시원한 음식을 좋아하면 태음인, 차가운 음식을 좋아하면 소양인으로 분류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뜨거운 음식은 소양인(32%)이, 따뜻한 음식은 소음인(51%)이, 시원한 음식은 태음인(34%)이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가운 음식은 태음인(12%)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A8. 손발 온도: 손발이 찬 편이면 소양인이나 소음인, 따뜻한 편이면 태음인으로 분류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손발이 찬 편에 대해선 소음인이 60%로 소양인(39%), 태음인(28%)보다 높았으며, 손발이 따뜻한 편에선 태음인(72%)과 소양인(61%)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 A9. 걸음걸이: 걸음걸이가 느리고 무게 있으면 태음인, 자연스럽고 얌전하면 소음인, 빠르고 흔들면 소양인으로 분류하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에 해당하는 체질에서의 각각 29%, 47%, 42% 등으로 다른 체질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A10. 땀: 땀을 많이 흘린 후 상쾌하면 태음인, 땀을 적게 흘리고 나서도 피곤하면 소음인, 땀을 흘려도 피곤하지 않으면 소양인으로 분류하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에 해당하는 체질에서 각각 51%, 46%, 52%로 나타나 다른 체질보다 높았다.
- A11. 겨울에 손발 트는 정도: 겨울에 손발 트는 정도는 체질에 무관하게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다. 심적 관찰문항(A12 - A15)

- A12. 종합적 평가: 전반적으로 볼 때 거침이 없고 과단성이 있으면 태음인, 활동적이고 용감하면 소양인, 온순하고 꾸밈이 없으면 소음인으로 분류하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에 해당하는 체질에서 각각 23%, 34%, 57%로 나타나 다른 체질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A13. 속마음: 남의 업적을 내 것으로 하는 경향이 있으면 태음인으로 분류한 문항인데, 본 연구에서는 태음인이 다른 체질보다는 그 답가지에 응답을 많이 했으나 17%에 불과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욕심이 많다는 평에서 태음인이 49%로 높았다.
- A14. 싫어하는 사람 유형: 너무 예의만 차리는 사람을

싫어하면 태음인, 점잖은 척 하는 사람을 싫어하면 소양인으로 분류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체질에 따른 싫어하는 사람 유형에 대한 분포가 4개 문항 가지 모두에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A15. 업무 추진력: 일을 밀고 나가는 형이면 태음인, 벌러만 놓는 형이면 소양인으로 분류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벌러만 놓는 형은 소양인이 35%로 다른 체질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나, 밀고 나가는 형은 소양인(34%)과 태음인(33%)에서 거의 같게 나타났다. 오히려 혼자 추진하는 형에서 소음인이 58%로 높게 나타났다.

2. 진위형 문항 분석

QSCC II 설문지 중 각 문항에 O, X 로 응답하는 진위형 문항은 7개 영역 10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의 문항 수를 분석했을 때 행동특성에 대한 문항이 29문항(27.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영역이 몸 특성 20문항(18.9%), 일처리/장단점 19문항(17.9%), 평소마음 14문항(13.2%), 대인관계 13문항(12.3%)의 순으로 분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QSCC II 진단프로그램에 의한 체질진단결과를 근거로 대상자를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으로 분류하여 각 문항에 대한 3개 체질간의 차이를 one way ANOVA를 통해 검증하였다(Table 4).

- 1) 일처리/장단점에 관한 문항 19개중 체질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문항은 B16(월급생활보다 수입이 다소 불규칙하더라도 목돈 버는 일이 좋겠다), B20(매사에 이해를 따지지 않고 나서는 편이다), B26(개인적인 일보다 사회적인 일에 열심이다), B27(사회적인 일보다 개인적인 일에 열심이다) 등 4개 문항을 제외한 15개 문항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15개 문항중에서 문항 개발시 기준 삼았던 체질과 일치하지 않은 문항 즉, 해당 체질에서 다른 체질에 비해 크게 차이나지 않은 문항은 4개 문항으로서, B17(무슨 일이나 시원스럽게 처리한다), B21(시작한 일은 끝까지 성취하는 편이다), B24(가까운 사람끼리만 어울리는 편이다), B34(성격이 시원시원하다) 문항이었다. 즉, B17은 태양인으로 분류된 문항이나, 본 연구에서는 태음인(7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B21은 태음인으로

분류된 문항이나, 본 연구에서는 태음인(74%)뿐 아니라 소음인(75%)에서도 높게 나타났으며, B24는 소음인(83%)으로 분류된 문항이나 태음인(81%)에서도 높았다. B34는 본래 태양인으로 분류된 문항이나 본 연구에서는 소양인(58%)과 태음인(59%)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B32(나는 무슨 일이건 철저히 하는 성미다)는 체질 분류에 이용되지 않은 문항이었으나, 태음인(74%)에서 가장 높았으며 체질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2) 대인관계에 관한 문항 13개중 체질간 차이가 통계적

으로 유의한 문항은 4개로서 B44, B45, B46, B47 문항이었다. 이중 B44(나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부지런한지 아닌지를 금방 알아차린다), B45(나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성실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아차린다) 문항은 개발당시 분류기준으로 삼았던 체질과 동일하게 태음인(82%)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B46(나는 사람을 볼 때 우선 재능이 있는지를 본다)은 소음인으로 분류된 문항이나 소음인(28%)뿐 아니라 태음인(26%)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고, B47(나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능력이

(table 4-1) Item analysis of true-false questionnaire

Item	sentence( I.....)	type of constitution	positive response rate(%)			Diff.	
			Soyangin	Taeumin	Soeumin	X <sup>2</sup>	P
B16	...more than salary	Soyang,Taeum	44	46	35	5.570	0.062
B17	Everything treats.....	Tayang	61	71	52	16.730	0.000
B18	.....first-met person.	Soyang,Taeum	58	45	38	11.220	0.004
B19	am active & brilliant	Soyang,Taeum	62	50	24	50.790	0.000
B20	understand anything.....	Soyang,Taeum	37	26	25	5.940	0.051
B21	achieve to the last	Taeum	51	74	75	21.800	0.000
B22	stay one place quietly	Soeum	59	66	78	13.380	0.001
B23	...precision & delicate	Soeum	45	62	71	19.830	0.000
B24	meet close friend only	Soeum	65	81	83	15.070	0.000
B25	make fiends easily	Soyang	60	50	39	12.200	0.002
B26	eager social affairs than...	Soyang,Taeum	32	39	30	4.210	0.122
B27	eager personal affairs than	Soeum	66	60	68	3.020	0.222
B28	take serious view of outer	Soyang	37	26	23	6.480	0.039
B29	take serious view of inner	Soeum	58	75	79	15.920	0.000
B30	cannot make friends easily	Soeum,Taeum	23	39	39	9.560	0.008
B31	am quick & courageous	Soyang	46	37	24	16.610	0.000
B32	being thorough		55	74	68	11.460	0.003
B33	rightness & caution	Soeum	63	74	85	20.180	0.000
B34	clear and brisk	Tayang	58	59	35	30.040	0.000
B35	tolerable		71	80	73	4.730	0.094
B36	moderation & strict		40	52	44	4.400	0.111
B37	have powers of persuasion	Soyang,Soeum	59	64	55	3.310	0.192
B38	calm others with sentimentalness	Soeum	60	70	63	3.920	0.141
B39	participate social meetings	Soyang,Taeum	47	47	41	1.680	0.433
B40	find out one's rightness	Tayang	71	74	64	4.450	0.108
B41	find out one's mentality	Tayang	68	79	71	5.040	0.081
B42	want to know one's education		14	06	11	5.470	0.065
B43	see one's cleverness		46	51	46	1.360	0.507
B44	see one's diligence	Taeum	52	74	62	16.090	0.000
B45	see one's faithfulness	Taeum	60	82	75	17.380	0.000
B46	see one's talent	Soeum	15	26	28	6.540	0.038
B47	catch one's capacity	Soeum,Taeum	60	45	44	7.060	0.029
B48	always make haste	Tayang,Soyang	66	59	50	8.060	0.018

있는지 없는지를 금방 알아차린다)은 본래 소음인과 태음인으로 분류된 문항이나 본 연구에서는 소양인(60%)에서 높았다.

- 3) 평소마음에 관한 14개 문항 중 B50, B56, B57, B58, B60 의 5개 문항을 제외한 9개 문항은 체질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문항중 B59(별일이 아닌데도 조바심 치며 불안해한다)문항은 본래 소양인으로 분류된 문항이나 본 연구에서는 소양인(53%)보다

소음인(67%)에서 높게 나타났다. B59문항을 제외한 13개 문항은 체질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본래 문항개발 당시 분류된 체질에서 높게 나타났다.

- 4) 문제점에 관한 6개 문항은 본래 문항 개발당시 분류 기준으로 삼았던 체질에서 다른 체질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지만 체질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5) 감정 특성에 관한 5개 문항 중 B68, B71, B72 문항

(Table 4-2) Item analysis of true-false questionnaire

Item sentence( I....)	type of constitution	positive response rate(%)			Diff.	
		Soyangin	Taeumin	Soeumin	X <sup>2</sup>	P
B49 anxious over uncompletion	Soyang,Soeum	48	27	28	15.820	0.000
B50 canot present myself at first	Taeum,Soeum	51	60	58	2.680	0.263
B51 coward & anxious	Soeum	25	24	50	36.410	0.000
B52 nervous	Soeum,Soyang	60	56	75	18.960	0.000
B53 perseverance	Soeum,Taeum	54	73	73	12.980	0.001
B54 overstatement	Soyang	30	22	14	10.930	0.004
B55 thoughtlessness	Soyang	42	26	24	11.270	0.003
B56 long-lasting distress	Soeum	61	58	68	4.130	0.128
B57 act according to mood	Soyang,Soeum	58	49	47	3.390	0.185
B58 give up easily	Soyang	45	38	39	1.600	0.450
B59 uneasiness about trivial	Soyang	53	46	67	20.620	0.000
B60 suffocating....	Soeum	62	61	69	3.040	0.219
B61 more masculine....		55	60	31	38.720	0.000
B62 cannot associate with others deeply	Soyang,Tayang	51	41	48	3.300	0.193
B63 many problem at home	Soyang	24	20	16	2.540	0.282
B64 cannot adopt new job		30	34	42	5.660	0.059
B65 difficult to make friends	Soeum	19	24	28	3.470	0.177
B66 irritable to trivial affairs	Soyang,Soeum	49	47	57	4.810	0.091
B67 difficult to address...		48	50	57	3.530	0.172
B68 get angry to be despised	Tayang	57	63	67	2.730	0.256
B69 uneven mood change	Soyang	70	56	56	6.610	0.037
B70 pretend to be normal		57	65	71	6.730	0.034
B71 impulsive to make famous		67	66	69	0.510	0.777
B72 often restlessness	Soeum	27	23	30	3.380	0.186
B73 dont express without trustworthiness	Taeum,Soeum	61	75	80	13.570	0.001
B74 often act without politeness	Soyang,Taeum	18	07	08	9.470	0.009
B75 often make a display....	Soyang	25	15	10	13.070	0.001
B76 pretend to be in existence	Taeum,Soeum	31	49	47	9.860	0.007
B77 dislike to be interference	Soeum	47	55	59	4.090	0.130
B78 act without other's senses	Tayang	25	21	18	2.300	0.318
B79 skillfull about everything		31	43	33	5.740	0.057
B80 pretend to be gentle		44	50	61	9.480	0.009
B81 often escape from meeting	Soeum	26	36	40	5.910	0.052



을 제외한 2개 문항에서만 체질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중 B69(평소에는 명랑하지만 감정의 기복이 심한 편이다)는 분류 기준대로 소양인(70%)에서 흡연률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문항 개발 당시 분류 체질을 제시하지 않았던 B70(마음이 상했

더라도 괜찮은 척 한다)은 소음인(71%)과 태음인(65%)에서 높게 나타났다.

6) 행동 특성에 관한 문항 29개 중 18개 문항을 제외한 11개 문항이 체질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

(Table 4-3) Item analysis of true-false questionnaire

Item	sentence( I....)	Type of constitution	positive response rate(%)			Diff.	
			Soyangin	Taeumin	Soeumin	X <sup>2</sup>	P
B82	can pay attention to ...		46	54	49	1.950	0.378
B83	more other's affairs than....	Tayang	27	29	26	0.440	0.805
B84	indifferent toward others	Soyang,Soeum	29	23	26	1.430	0.490
B85	indifferent toward myself	Taeum	39	47	44	1.860	0.395
B86	want to receive reward		19	15	19	1.380	0.504
B87	persuasion is to my turn	Soeum	47	43	39	1.480	0.478
B88	appear to public	Taeum	39	44	53	6.340	0.042
B89	anxious to be timid	Soeum	22	21	41	23.780	0.000
B90	often want to have other's idea	Tayang	16	16	19	0.570	0.753
B91	often desire to other's material		27	26	22	1.390	0.501
B92	unpoliteness	Tayang	20	23	18	1.620	0.446
B93	indifferent toward home affairs	Soyang	34	32	31	0.150	0.929
B94	senseless without mine	Taeum	48	58	58	3.620	0.164
B95	careful to every matter	Soeum	27	33	47	15.380	0.000
B96	feel uncomfortable about open mind	Soeum	28	34	42	6.910	0.031
B97	feel something lack at achievement	Tayang	49	60	57	3.340	0.189
B98	eagerness to other's affairs but....		40	43	42	0.340	0.845
B99	am abundant but.....lack...		43	47	48	0.720	0.699
B100	am delightful at trivial	Soeum	74	82	88	8.990	0.011
B101	more feminine	Soeum	39	37	60	26.150	0.000
B102	difficult to swallow food	Tayang	10	12	13	0.550	0.760
B103	tenesmus after defecation	Taeum	38	55	46	8.900	0.012
B104	constipation...		34	39	30	3.810	0.149
B105	lasting diarrhea & feel cold abdomen.	Soeum	31	33	38	1.960	0.376
B106	feel good at sweating foot & hand		14	14	16	0.600	0.741
B107	feel good at sweating nose		10	06	10	2.610	0.273
B108	disurination while...feel bad..	Tayang	31	33	37	1.370	0.506
B109	constipation while...feel bad....		27	34	31	1.710	0.427
B110	after sweating ... feel good....	Taeum	37	50	38	8.690	0.013
B111	indigestion while ...feel bad...	Soeum	55	56	69	8.860	0.012
B112	often ...sigh at low vitality	Soeum	38	39	57	16.890	0.000
B113	difficult to move extrimities	Tayang	49	53	53	0.330	0.846
B114	feel distention after eating food	Soeum	48	52	55	1.360	0.508
B115	usually... feel palpitation		35	39	43	2.080	0.355
B116	often...feel shivering my body	Soeum	36	42	49	5.470	0.065
B117	sometimes ..feel eye pain	Taeum	31	35	43	5.640	0.060
B118	sometimes ..feel eye tired	Taeum	50	63	62	4.980	0.083
B119	sometimes ..feel chest stuffy		46	45	52	2.300	0.317
B120	cold sweating when..feel sick	Soeum	33	28	42	9.430	0.009
B121	sweating when...eat cold food in winter	Taeum	12	13	07	4.540	0.103

타났다. B88(남 앞에 잘 나서지 못한다)은 분류기준이 태음인(44%)으로 분류된 문항이나 본 연구에서는 소음인(53%)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문항 B80(점잖은 척 할 때가 많다)은 체질분류기준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체질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소음인(61%)에서 가장 높았다. 이 둘을 제외한 나머지 행동특성에 관한 문항들은 체질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든 유의하지 않든 문항 개발당시 분류기준으로 제시됐던 체질에서 높게 나타났다. 다만 비록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나 B87(사람을 설득하는 일은 대개 나에게 돌아온다) 문항은 소음인으로 분류된 문항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소음인(39%) 보다는 소양인(47%)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 7) 몸 특성에 관한 20개 문항 중 15개 문항을 제외한 B103, B110, B111, B112, B120의 5개 문항에서만 체질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된 5개 문항 중 B103(변을 보고 난 뒤에도 개운하지 않고 또 보고 싶을 때가 많다)문항과 B110(몸이 안 좋을 때 땀을 내면 개운하다)문항은 각각 55%, 50%로 태음인에서 높았고, B111(몸이 안 좋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문항과 B112(평소에 기운이 없어 한숨을 내쉬는 경우가 자주 있다)문항, 그리고 B120(평소엔 땀이 적으나 병이 심해지면서 식은땀이 많이 난 적이 있다)문항은 각각 69%, 57%, 42%로 소음인에서 높았다. 체질간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B117(간혹 눈동자가 아플 때가 있다) 문항은 태음인으로 분류된 문항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태음인(35%)보다 소음인(43%)에서 높았다.

### 3. OX형 문항 분석결과에 따른 문항 간소화

106개의 OX형 문항을 설문지 개발당시 분류기준으로 삼았던 체질에 따라 기준 체질별로 문항 수를 분석했을 때 소음인을 분류하기 위한 문항이 27개(25.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태양인과 소양인이 각각 13문항(12%), 태음인 11문항(10%)의 순이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42개 문항 중 19개 문항은 두 개 체질을 함께 분류하고 있었고, 23개 문항은 분류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Table 5).

그러나 QSCC II 진단결과에 따라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으로 분류된 세 집단의 대상자에게 있어서 체질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문항을 제외하면, 기존의 106개 문항 중 46개 문항(43.4%)으로 간소화할 수 있었다. 이 46개 문항은 영역별로 볼 때 일처리/장단점영역에서는 19개 문항 중 15개 문항(78.9%)이, 대인관계 영역은 13개 문항 중 4개 문항(30.8%)이, 평소 마음영역은 14개 중 9개 문항(64.3%)이, 감정 특성 영역은 5개 중 2개 문항(40%)이, 행동 특성 영역은 29개 중 11개 문항(37.9%)이, 몸 특성 영역은 20개 중 5개 문항(20%)이 선택되었으며, 문제점 영역은 6개 문항이 모두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어 제외되었다.

이를 체질별로 접근했을 때 태양인으로 분류된 기존 13개 문항 중 2개(15.4%)만이, 소양인으로 분류된 13개 문항 중 9개(69.2%)가, 태음인으로 분류된 11개 문항 중 6개(54.5%)가, 소음인으로 분류된 27개 문항 중 15개(55.6%)가, 두 개 체질로 함께 분류된 19개 문항 중 10개(52.6%)가, 분류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23개 문항 중 4개(17.4%)가 선택되었다. 한편 간소화된 46개 문항만을 놓고 영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일처리/장단점에 대한 문항이 15개(32.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행동특성 11문항(23.9%), 평소마음 9문항(19.6%), 몸 특성 5문항, 대인관계 4문항, 감정 특성 2문항 순으로 분포되었고, 역시 문제점에 대한 문항은 6개 모두 제외되었다. 또한 46개 문항의 기준 체질별 분포를 분석했을 때 소음인을 분류하는 문항이 15개(32.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소양인 9문항(19.6%), 태음인 6문항, 태양인 2문항 순이었으며 나머지 중 두 개 체질을 함께 분류하는 문항이 10문항, 분류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문항이 4문항이었다.

그러나 이중 기존 체질기준이 태양인으로 분류되던 문항 B17과 B34의 2개는 본 연구결과에서 B17은 태음인으로, B34는 소양인과 태음인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분류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B32, B61, B70, B80의 4개 문항도 본 연구결과 B32는 태음인으로, B61은 태음인과 소양인으로, B70은 소음인과 태음인으로, B80은 소음인으로 분류되었다. 위와 같이 비교하여 기존 체질 분류기준의 수정 결과를 반영한 최종 46개 문항의 체질별 기준 문항 수는 태양인 0개, 소양인 11개(23.9%), 태음인 6개(13.0%), 소음인 16개(34.8%), 소양인과 태음인 4개(8.7%), 소음인과 태음인 9개(19.6%), 소양인과 소음인 0개, 분류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문항 0개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소양인으로 분류되는 문항은 15

<Table 5> Simplification of true-false type items

Area	No. of items	criteria allocation of constitutional items								Items to change criteria	No. of selective items (percent)
		Tayangin type	Soyangin type	Taeumin type	Soeumin type	Soyang & Taeum	Soeum & Taeum	Soyang & Soeum	No classification		
handling something/ strength & weakness	19	B17 B34	B25 B28 B31	B21	B22 B23 B24 B27 B29 B33	B16 B18 B19 B20 B26	B30		B32	B17→Taeum B21→Taeum Soeum B24→Taeum Soeum B32→Taeum B34→Soyang Taeum	19/15 (78.9%)
inter- personal relationship	13	B40 B41		B44 B45	B38 B46	B39	B47	B37	B35, B36 B42, B43	B46→Soeum Taeum B47→Soyang	13/4 (30.8%)
state of mind at ordinary times	14		B48 B54 B55 B58 B59		B51 B56 B60		B50 B53	B49 B52 B57	B61	B49→Soyang B52→Soeum B59→Soeum B61→Taeum Soyang	14/ 9 (64.3%)
problematic	6		B62 B63		B65			B66	B64, B67		6 / 0 (0 %)
distinctive emotional characteristics	5	B68	B69		B72				B70, B71	B70→Soeum Taeum	5/2 (40%)
specific behavioral trait	29	B78 B83 B90 B92 B97	B75 B93	B85 B88 B94	B77 B81 B87 B89 B95 B96 B100 B101	B74	B73 B76	B84	B79, B80 B82, B86 B91, B98 B99	B74→Soyang B80→Soeum B88→Soeum B100→Soeum Taeum	29/11 (37.9%)
physical characteristics	20	B102 B108 B113		B103 B110 B117 B118 B121	B105 B111 B112 B114 B116 B120				B104, B106 B107, B109 B115, B119		20/ 5 (25%)
total items	106	13/2	13/9	11/6	27/15	7/3	6/5	6/2	23/4		106/46 (43.4%)

# underlined items : There were statistically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4 types of constitution.

개, 태음인으로 분류되는 문항은 19개, 소음인으로 분류되는 문항은 25개이었다.

#### 4. 간소형 설문지의 문항 적합성 평가

106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설문과 46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설문에서 해당 체질로 분류되는 문항의 선택율을 비교하여 간소형 설문지의 문항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설문문항을 46개로 간소화하여도 각 체질분류 문항의 선택율은 3개 체질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 통계량의 단순비교에서도 106개 문항보다는 46개 문항에서의 체질간 차이 검정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또한 106개 문항으로 된 설문과 46개 문항으로 된

설문에서 해당 체질로 분류되는 문항의 선택율을 비교했을 때 3개 체질에서 모두 106개 문항으로 된 설문보다 46개 문항으로 된 설문에서 해당 체질 문항의 선택율이 높았다. 즉 소양인 체질의 대상자가 소양인으로 분류된 문항을 선택한 비율은 106개 문항 설문에서 45.7% 이었으나 46개 문항 설문에서 46.7%이었으며, 태음인 체질의 대상자는 106개 문항 설문에서 태음인으로 분류된 문항 선택한 비율이 53.5% 이었으나 46개 문항 설문에서 62.3%로 나타났다. 또한, 소음인 체질의 대상자도 106개 문항 설문에서 소음인으로 분류된 문항의 선택율이 55.4% 이었으나 46개 문항 설문에서 62.5%로 더 높게 나타나, 설문 문항 수를 46개로 간소화했을 때 오히려 자신의 체질과 관련된 문항을 선택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Table 6> Comparison of item-selection rate between original 106-item & simplified 46-item questionnaire

questionnaire		106-item questionnaire			46-item questionnaire		
constitution	subjects	items selected	preference (%)	diff.	items selected	preference (%)	diff.
Soyang type items	Soyangin	11.8±4.58	45.7	F=9.804 (P=.000)	7.00±2.78	46.7	F=28.102 (P=.000)
	Taeumin	10.24±4.18	39.4		5.87±2.97	39.1	
	Soeumin	9.51±4.97	36.6		4.51±2.80	30.1	
Taeum type items	Soyangin	10.29±3.51	42.9	F=17.303 (P=.000)	9.69±2.91	51.0	F=26.338 (P=.000)
	Taeumin	12.84±3.11	53.3		11.84±2.37	62.3	
	Soeumin	12.06±3.91	50.3		10.54±2.64	55.5	
Soeum type items	Soyangin	17.27±5.78	44.3	F=25.076 (P=.000)	11.27±3.91	45.1	F=52.308 (P=.000)
	Taeumin	18.89±5.56	48.4		13.00±3.77	52.0	
	Soeumin	21.61±5.11	55.4		15.63±3.64	62.5	

<Table 7> Comparison of constitutional item preference rate between original 106-item & simplified 46-item questionnaire

questionnaire	constitution	Soyang type items (Among 26 items)	Taeum type items (Among 24 items)	Soeum type items (Among 39 items)
106-item questionnaire	No. of items selected	11.88±4.58	12.84±3.11	21.62±5.11
	preference rate	45.70%	53.50%	55.40%
46-item questionnaire		Soyang type items (Among 15 items)	Taeum type items (Among 24 items)	Soeum type items (Among 25 items)
	No. of items selected	7.00±2.78	11.84±2.37	15.63±3.64
	preference rate	46.70%	62.30%	62.50%

#### IV. 논 의

본 연구는 다른 어떤 체질진단도구보다 진단 정확률이 높은 것으로 인정받고 있는 QSCC II 설문지의 임상적 타당성을 사상체질 전문한의사가 아닌 간호사의 시각에서 검토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QSCC II를 이용해 본 연구대상자의 체질을 감별했을 때 국내 다른 연구들에서와 같이 태양인의 경향을 지닌 대상자는 없었으나 나머지 3개 체질에 대한 대상자 분포는 선행 연구에서와 달리 소음인(41.5%)이 태음인(39.2%)보다 약간 많게, 그리고 소양인(19.2%)의 순서로 나타났다. 즉 동일한 QSCC II 설문지를 이용해 체질을 분류한 선행연구결과를 비교해 볼 때 일반 건강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 Kim, S. Y.(2000)은 소양인(41.7%), 태음인(39.6%), 소음인(18.8%)의 순서로, Park, S. S., Park, E. K., & Choi, J. Y.(1999)은 소양인(30.5%), 태음인(34.8%), 소음인(34.7%)으로, Park, H. G. & Lee, J. H.(1998)는 소양인(34.4%), 태음인(33.9%), 소음인(30.7%)으로 보고하였고, 한방병원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 Jeon, E.(1992)은 소양인(31.0%), 태음인(37.96%), 소음인(31.0%)으로, Kim, Y. W., & Kim, J. W.(1999b)은 소양인(16.3%), 태음인(49.5%), 소음인(34.2%)의 순서로 보고되었다. 이와 같이 연구에 따라 대상자의 체질 분포가 달리 나타난 것을 볼 때 설문지를 이용한 체질감별의 정확성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연령, 성별, 결혼, 학력 등)에 따른 체질구성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연령, 성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한 Kim, S. H., Ko, B. H., & Song, I. B.(1996)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 대한 다른 각도의 평가에서 QSCC II 설문지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체질감별 도구임을 반영해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QSCC II 설문지가 임상연구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진단방법이나 사상의학을 전공한 전문가가 아닌 일반 임상가가 활용하기엔 설문문항수가 많고 설문조사에 시간이 많이 걸려 임상에서 보편적인 기준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

하여 문항 감소의 방법으로 각 문항에 대해 체질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답가지가 제시된 선택형 문항 15개중 A1(체격)은 확실하게 소양인과 소음인으로 분류되는 체격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A2(체형)도 태음인으로 분류되는 확실한 문항이었고 A4(체형 발달 부위)도 A3(상하체 관계)문항과 일관성 있게 가슴발달, 둔부발달 만 질문하여 태음인과 소음인으로 분류되는 타당한 문항으로 나타났으며, 역시 A5(외모와 골격)와 A6(가슴발달)와 함께 체질 분류 문항으로 적합하였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A1-A6 까지 체격 관련 설문은 태음인을 나타내는 체격에서 태음인이 소양인이나 소음인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며 높게 나타나 태음인을 분류하는 강력한 설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A7(음식 온도)문항의 경우 음식 온도에 따른 기존 체질분류기준과 달리 뜨거운 음식은 소양인, 따뜻한 음식은 소음인, 시원한 음식과 차가운 음식은 태음인이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다. 따라서 시원한 음식과 차가운 음식에 대한 체질별 기준을 분명히 하는 문항가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A8(손발 온도)문항은 손발 온도에 따른 기존 체질 기준과는 달리 대상자들은 손발이 찬 편은 소음인으로, 따뜻한 편은 소양인이나 태음인에게 높게 나타났으므로 이에 대한 분류기준의 조정을 고려해봄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 A9(걸음걸이)와 A10(땀)은 체질분류문항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A10(땀)문항은 해당 체질에서 50% 전후로 높게 나타나 가중치를 높게 부여할 수 있는 체질 분류 문항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A11(겨울에 손발 트는 정도)은 체질에 무관하게 흡연률이 유사한 분포를 보여 체질을 분류하는 문항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12(종합적 평가)는 체질을 분류하는 문항으로 적합하였고 A13(속마음) 문항은 기존체질분류에서 태음인으로 분류되는 답가지 보다는 오히려 다른 답가지(욕심이 많다)에서 높은 응답을 보여 분류되는 기준과 달라 체질 분류 문항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A14(싫어하는 사람 유형)도 체질에 따른 흡연률 분포가 4개 답가지 모두에서 유사하게 나타나 체질 분류 문항으로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A15(업무 추진력)는 밀고나감(태음인), 일을 벌려만 놓는 형(소양인)의 기존 체질 분류 기준에 더하여, 소음인이 혼자 일을 추진하는 형에 대한 선택율(58%)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 답가지의 분류기준을 고려해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선택형 15개 문항에 대해  $X^2$ -test로 체질간 차이를

검정했을 때 A4, A11, A14를 제외하고 12개 문항에 대해선 체질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각 문항에 대한 기존 체질 분류 기준과 각 체질에 따른 대상자들의 선택 답가지가 서로 다르거나 체질별 선택 답가지의 차이가 없는 문항이 A6, A7, A8, A11, A13, A14, A15 의 7개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7개 문항에 대하여 다른 문항과 통합하거나 제외하거나 기존 체질 기준의 보완이나 수정을 통하여 설문지를 재구성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QSCC II 설문지중 OX형 문항은 7개 영역의 10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문항에 대한 체질간의 차이를 one way ANOVA를 통해 검증했을 때, 일처리/장단점에 관한 문항 19개중 체질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문항은 15개 문항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문항 개발 당시 기준으로 삼았던 체질과 일치하지 않은 문항은 B17(무슨 일이나 시원스럽게 처리한다), B21(시작한 일은 끝까지 성취하는 편이다), B24(가까운 사람끼리만 어울리는 편이다), B34(성격이 시원시원하다)의 4개 문항이었다. 문항은 제시되었으나 기존 체질 분류기준으로 이용되지 않았던 B32(나는 무슨 일이건 철저히 하는 성미다)는 태음인(74%)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문항의 분류기준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대인관계에 관한 문항 13개중 체질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문항은 B44, B45, B46, B47 등 4개뿐이고, 나머지 9개 문항은 체질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문항 개발당시 기존 체질분류 기준이었던 체질대상자가 높게 나타나지도 않아 대인관계의 9개 문항은 체질을 분류하는 문항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마음에 관한 문항 14개중 9개 문항에서 체질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중 B59(별일이 아닌데도 조바심 치며 불안해한다) 문항의 기존 체질 분류기준은 소양인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소음인의 체질분류기준문항으로 적합하게 나타났고, 나머지 문항들은 체질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든 유의하지 않든 문항개발 당시 기존 체질 분류기준에 적합한 체질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체질간 차이를 크게 반영하지 못하여 통계적 유의성이 낮은 문항이라도 추후 타당성 검증 절차를 거친 후 포함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문제점에 관한 6개 문항은 문항 개발 당시 체질 분류기준으로 삼았던 체질의 대상자가 다른 체질의 대상자 보다 높게 나타나긴 했으나 체질간 차이가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므로, 체질 분

류 문항으로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는 추후 타당성 검증 절차를 거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감정 특성에 관한 문항 5개중 2개 문항에서만 체질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중 문항 개발 당시 분류할 기준 체질을 제시하지 않았던 B70(마음이 상했더라도 괜찮은 척한다)은 소음인(71%)과 태음인(65%)에서 높게 나타났으므로 추후 타당성 검증 절차를 거친 후 체질 분류 문항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문항이 간소화되었을 때 감정 특성 영역을 검증을 거쳐 평소마음 영역에 통합하여도 무리는 없을 듯 사료된다. 행동 특성에 관한 29개 문항 중 11개 문항에서 체질간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중 B88(납 앞에 잘 나서지 못한다)은 기존 체질분류기준은 태음인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태음인(44%)보다 소음인(53%)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기존 체질 분류기준에서 체질분류가 제시되지 않았던 문항 B80(점잖은 척 할 때가 많다)은 소음인(6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추후 검증이 더 필요한 문항으로 나타났다. 몸 특성에 관한 문항은 20개중 5개 문항에서만 체질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OX형 문항으로 질문한 7개 영역 중 문제점 영역의 문항을 제외한 다른 6개 영역에서 체질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문항만으로 설문지를 구성할 경우 기존 체질분류기준 106개 문항 중 46개 문항(43.4%)으로 간소화할 수 있는데, 46개 문항의 영역별 분포를 보면 일처리/장단점영역이 15개 문항(32.6%), 대인관계 영역이 4개(8.7%), 평소마음영역은 9개(19.6%), 감정 특성 영역은 2개(4.3%), 행동 특성 영역은 11개(23.9%), 몸 특성 영역은 5개(10.9%)이며, 일처리/장단점 영역과 행동특성 영역의 문항들이 그 동안 체질 분류에 기여한 문항으로 평가된다. 또한 분석결과 기존 체질 분류기준을 수정하고, 분류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문항에 기준을 부여했을 때 46개 문항의 기준 체질별 문항 수는 태양인 0개, 소양인 11개(23.9%), 태음인 6개(13.0%), 소음인 16개(34.8%), 소양인과 태음인 4개(8.7%), 소음인과 태음인 9개(19.6%)로 나타났고, 결과적으로 소양인을 분류하는 문항은 15개, 태음인을 분류하는 문항은 19개, 소음인을 분류하는 문항은 25개가 분포되어 실제 우리나라 사람에서 분류되지 않는 태양인 분류 문항은 없이, 그리고 분류 기준을 제시할 수 없는 문항을 포함하지 않은 46문항으로 간소화된 설문지 구성이 가능하며, 106개 문항을 46개 문항으로 간소화했을 때도 각 체질 분류문

항의 선택율은 3개 체질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06개 문항 설문과 46개 문항 설문에서의 해당 체질분류 문항 선택율을 비교했을 때 3개 체질 모두에서 106개 문항 설문에서보다 46개 문항 설문에서 해당 체질 문항의 선택율이 높게 나타나 설문 문항수를 간소화했을 때도 자신의 체질과 관련된 문항을 구별하여 선택할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선택형 문항과 진위형 문항을 통틀어 각 문항의 통계적 유의성을  $p < .05$  수준에서 분석했을 때 선택형 문항 15개중 12개 문항, OX형 문항 106개중 46문항 등 총 62문항이 유의성 있는 문항으로 선택되었고, 유의수준을 높여  $p < .01$  수준에서 분석했을 때는 선택형에서 10문항, OX형 문항에서 36문항 등 총 46문항이 유의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im, Y. & Kim, J.(1998)이  $p < .01$  수준에서 분석했을 때 총 45개 문항을 유의성이 있는 문항으로 보고한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이중 본 연구와 Kim, Y. & Kim, J.(1998)의 연구에서 모두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문항 총 36개 문항이었다. 즉, 선택형 문항에서 10개(1, 2, 3, 5, 6, 8, 9, 10, 12, 15문항)와 OX형 문항에서 7개 영역중 일처리 영역에서 11개(18, 19, 22, 23, 24, 25, 28, 29, 31, 33, 34문항), 평소마음 영역에서 6개(48, 49, 51, 53, 55, 61문항), 감정특성 영역에서 1개(69문항), 행동특성 영역에서 6개(73, 75, 88, 89, 96, 101문항), 몸특성 문항에서 2개(111, 112문항) 등 5개 영역에서 26개가 포함되었다. 대인관계 영역과 문제점 영역에선 일치되는 문항이 없었다. 비록 두 편의 연구를 비교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문항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에서 상당 부분 일치성을 발견할 수 있어 추후 대상자를 달리한 반복 연구결과가 축적될 경우 객관성 있는 단축형 체질 분류 설문지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다른 어떤 체질진단도구보다 진단 정확률이 높은 것으로 인정받고 있는 QSCC II 설문지의 임상적 타당성(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2000)을 사상체질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시각에서 검토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이를 위해 A 대학병원의 건강검진센터 방문자 259명, 외래 진료환자 292명 등 총 568명을 대상으로 설문 응답을 받아 각 문항의 통계적 유의

성을  $X^2$ -test와 one way ANOVA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상체질중 태양인의 경향을 지닌 대상자는 없었으며 소음인과 태음인이 각각 41.5%, 39.2%로 유사하게 분포하였고 소양인은 19.2%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대상자의 체질 구성비율은 연령, 성별, 결혼력, 학력, 종교유무, 경제상태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과는 무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2. QSCC II를 구성한 총 121개 문항 중 선택형 문항 15개에 대해  $X^2$ -test로 체질간 차이를 검정했을 때 A4, A11, A14를 제외하고 12개 문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각 문항에 대한 기존 체질 분류 기준과 해당체질 대상자의 분포를 비교한 결과를 통해 A6, A11, A13, A14 등 4개 문항은 다른 문항과 통합하거나 제외하고 A7, A8, A15 문항은 설문지를 재구성해보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3. QSCC II 설문지중 진위형 문항 106개에 대해  $X^2$ -test로 체질간 차이를 검정했을 때 46개 문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46개 문항의 영역별 분포는 일처리/장단점영역이 15개 문항 (32.6%), 대인관계 영역이 4개(8.7%), 평소 마음 영역은 9개(19.6%), 감정 특성 영역은 2개 (4.3%), 행동 특성 영역은 11개(23.9%), 몸 특성 영역은 5개(10.9%) 문항이 포함되어 일처리/장단 점 영역과 행동특성 영역의 문항들이 그 동안 체질을 분류하는데 기여한 문항으로 나타났다.
4. OX형 106개문항을 46개문항으로 간소화했을 때 각각 체질분류문항의 선택율은 3개 체질간에 one way ANOVA로 차이 검정을 실시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06개문항 설문과 46개 문항 설문에서의 해당 체질분류 문항 선택율은 3개 체질 모두에서 106개 문항 설문에서보다 46개 문항 설문에서 해당 체질 문항의 선택율이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QSCC II 설문지의 설문 문항수를 간소화 하여도 대상자가 자신의 체질과 관련된 문항을 구별하여 선택할 확률은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추후 다양한 대상자를 통해 설문 문항수를 간소화하는 연구를 반복하여 결과가 축적된다면 사상체질전문가가 아닌 일반의료인도 임상현장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단축형 사상체질분류설문지를 개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체질분포의 차이를 규명하는 연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2. 동일한 체질분류 설문지를 사용하여도 연구마다 대상자의 체질분포가 달리 나타나는 이유를 규명한다.
3. 대상자를 달리한 반복 연구를 수행하여 유의성 있는 문항을 검증하는 작업을 지속한다.
4. 본 연구에서 유의성 있게 나타난 문항만으로 설문지를 재구성하여 사상체질 전문가집단을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다.

## References

- Koh, B. H., Kim, S. H., Park, B. G., Lavelle, J. D., Tecun, M., Ross, A., Hobbs, R., Zolli, F., & Chin, K. H. (1999). A study on the Sasang constitutional distribution among the people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J of Const Med*, 11(2), 119-136.
- Kim Sun Ho, Ko Byung Hee, Song Il Byung (1996). A Study on the Standardization of QSCCII(Questionnaire for the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II), *Journal of Constitutional Medicine*, 8(1),187-246
- Kim, Sook Young (2000). A Study of Health Promotion Behavior and Health Status based on Adult's Constitution,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7(3), 441-452
- Kim Young-woo, Kim Jong-weon (1998). A Clinical Study of the Judgment of Sasang Constotution According the Questionnaire, *Journal of Constitutional Medicine*, 10(1), 215-233.
- Kim Y. W., & Kim, J. W. (1999a). The study in objectification of the diagnosis of Sasang constitution. *J of Const Med*, 11(2), 151-183.
- Kim Y. W., & Kim, J. W. (1999b). A clinical study of the type of disease and symptom according to Sasang constituion classification.

*J of Const Med*, 11(1), 119-135.

- Moon Heui-Ja, Jung Sook-Ja (1996), Nursing Approach of four Constitutional Theory. Korea Community Health Nursing Academic Society, 10(1), 139-154
- Park, S. S., Park, E. K., & Choi, J. Y. (1999). Analysis of inter-questionnaire agreement in determining Sasang constitution. *J of Const Med*, 11(1), 103-117.
- Park, H. G., & Lee, J. H. (1998). A study on the associations between Lee Je-Ma Sasang constitutions and C. G. Jung's psychological types. *J of Const Med*, 10(2), 41-50.
- Song, I. B. (1996). *Easy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Seoul: Sa Sang Sa.
- Song I. B. (1998). The future prospect of the studies on the objectification of Sasang constitution. *J of Const Med*, 10(1), 1-11.
- Jang, H. L., Lee E. J., Koh, B. H., & Song, I. B. (2001). A study on the validity to make a diagnosis of Taeumin by QSCCII. *J of Sasang Const, Med*, 13(1), 45 - 50.
- Jeon Eun-young (1992), A Research on the Health State According to Each of the Korean constitution's Perceptual level of stress, Graduate School of Kyung Hee University
- Jung, W. G., & Kim, J. W. (1999). The bibliographical investigation of Sasang constitution diagnosis. *J of Const Med*, 11(2), 95-117.
-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2000). Study of objective diagnostic index of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 Abstract -

## A Study on the Simplification of Questionnaire for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QSCC II)

Park, Jee won\* · Wang, Myung ja\*\*  
Kim, Jeong ah\*\*\*

The purpose of this descriptive study was to evaluate the clinical validity of QSCCII (Questionnaire for the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whose high accuracy as a constitutional diagnostic tool has been recognized by medical professional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568 clients from an A university hospital in Suwon. Of the subjects, 259 were health center visitors and 292 were ambulatory clinic visitors. Data were collected using self-reported questionnaire and were analyzed by X<sup>2</sup>-test and one-way ANOVA.

The results of this study as follows:

1. In 4 types of constitution, Soeumin type was found in 41.5% of the subjects, Taeumin type in 39.2%, and Soyangin type in 19.2%, respectively. There was no Tayangin type found in this study.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on types of constitution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uch as age, sex, marital status, education, religion, and economic status.
2. As for 15 item-selective questionnaire,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on the response rate of the 12 items, except items such as A4, A11 and A14, by the

\* Associate Professor, Division of Nursing Science, Ajou University

\*\*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corresponding author)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emyung University



types of constitution. When the subjects' own criteria on their constitution were compared to the given constitutional criteria on each item, 4 items such as A6, A11, A13 and A14 were advisable to be excluded from the questionnaire or to be reunited to the other criteria. In the meanwhile, 3 items such as A7, A18 and A15 were desirable to be re-categorized to the other constitutional types and reconstructed to the QSCC II questionnaire.

3. In terms of 106 true-false questionnaire,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on the response rate of 46 items by the types of constitution. The 46 items include 15 items (32.6%) of the domain of 'handling something/strength and weakness', 4 items (8.7%) of the domai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9 items (19.6%) of the domain of 'state of mind at ordinary times', 2 items (4.3%) of the domain of 'distinctive emotional characteristics' area, 11 items (23.9%) of the domain of 'specific behavioral trait' and 5 items (10.9%) of the domain of 'physical characteristics'. Therefore, the areas of 'handling something/strength and weakness' and 'specific behavioral trait' mainly contributed to the classification of constitutional type.

4. When the 106 true-false items were simplified to the 46 item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on the rate of items allocated to the 3 types of constitution. The rate of selection assigned to the 3 constitutional types of the simplified 46-item questionnaire was higher than that of the original 106-item questionnaire.

Conclusions: It was concluded that the rate of selection of each lay person about his own constitutional type would be still higher even though the simplified items of QSCC II questionnaire were applied. If more replicated studies are conducted on the diverse population using the simplifying QSCC II questionnaire in the future, a more simplified standardized Sasang Constitution Questionnaire that is available to the public rather than to medical staffs in the clinical settings could be developed. Moreover, the simplified scale will help nurses deliver more efficient nursing care by providing a more rapid way of health assessment.

Key words : Constitution, QSCC(Questionnaire for the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II